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눅23:26-33)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²⁶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²⁷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²⁸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²⁹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³⁰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³¹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³²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는 참 진리들, 곧 사랑의 선으로 말미암은 진리들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 젖’은 인애의 선으로 말미암은 참 진리들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the barren,” and “the bellies that have not borne,” signify those who have not received genuine truths, that is, truths from the good of love, and “the breasts that have not given suck” signify those who have not received genuine truths from the good of charity.* (AE.710:8)

※ 이는 스베덴보리 저, ‘계시록 해설’(APOCALYPSE EXPLAINED) 710번 글 8번 항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And being with child she cried out, travailing, and pained to bring forth.)* (계12:2)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중,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때’ (And being with child)에 대한 주석입니다.

유대 성직자들의 요구로 주님을 심문했던 총독 빌라도는 주님께에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에게는 큰 잘못이 없으니 풀어 주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손에 맡겨 뜻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해골이라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²⁶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주님은 그 전날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체포되던 때부터 꼬박 이틀 동안 옥을 당하시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힘이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의 기진한 모습을 본 병사들이 행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말씀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본문에는 시몬에 대해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표현이고, 새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는 밭에서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새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은 스베덴보리가 히브리,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는 기존 성경을 속뜻을 염두에 두고 번역, 자신의 모든 저술에서 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 천사들은 내적 존재여서 지상 만물이 모두 그 내적 의미로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상에 걸터다니는 모든 사람 역시 그들 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까만 덩어리로만 보이는 식이지요. 심지어 갓난아이조차 그렇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 안에 주님의 신성,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과 진리 대신 악과 거짓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지요. 그들에겐 사람들의 이름이나 외모, 출신 지역이나 배경 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시몬’이라는 이름의 내적 의미만 보이지, 그가 베드로인지, 여기 구레네 시몬인지는 중요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밭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까닭은, 밭은 진리의 씨가 뿌려지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밭에서 왔다는 것은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시몬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몬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새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은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을 홀로 싸워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시몬이 주님의 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시험을 통한 주님의 영화(*glorification*)와 인간의 거듭남(*regeneration*)은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

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화가 없으면 인간의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시험을 당할 때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이며, 셋째, 시험에 관한 이런 진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²⁷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뜻으로는 좀 다른데요, 속뜻으로는, 이들은 주님 당시 유대교회, 또는 더 나아가 말세에 타락한 교회들을 나타냅니다. 말씀에서 ‘여자’, ‘여인’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했을까요? 영적 의미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통곡하는 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 애통해하는 건 교회 안에 진정한 진리, 또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회는 이른바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교회로부터 신성한 선과 진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황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²⁸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앞 절에 나오는 여인이나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모두 마지막 때 기울어져 가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교회들이 생산해 내는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시는 것은 앞으로 교회 안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킬 때, 필연적으로 주님과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님에게서 선과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²⁹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 ‘계시록 해설’ 710번 글 8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는 참 진리들, 곧 사랑의 선으로 말미암은 진리들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 젖’은 인애의 선으로 말미암은 참 진리들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오래전부터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자연적인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이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진리와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사랑의 선으로 말미암은 진리와 인애의 선으로 말미암은 진리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진리의 바탕에 주님에 대한 사랑, 즉 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후자는 그 바탕에 이웃 사랑, 즉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속한, 즉 말미암은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인 선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일의 절차와 방법인 진리를 따집니다. 그에 비해 이웃 사랑에 속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일의 목적이나 유익 같은 선보다는 절차와 방법의 합리성, 즉 진리를 먼저 고려합니다.

※ 즉, 전자는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반면, 후자는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

다. 이런 차이는 각각 천적 천국, 영적 천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어느 것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특성으로, 둘 다 참 진리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영적 진리들입니다. 즉 사랑의 선에 속한 진리와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가 영적 진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거나, 젖을 먹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곧 교회 밖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진리를 가졌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도덕적 진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이방 종교의 진리는 모호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모호하면 그에 따라 삶도 모호해집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이유는, 영적 진리를 알고도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채 도덕적으로 사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후

눅23:26-33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자의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입
니다.

※ 전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는 신성모독으로 흐
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
각한 것은 다음 주님 말씀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³¹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
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
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
하겠고 ³²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
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
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12:31-
32)

이에 대한 더욱 깊은 설명은 다
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³⁰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부활하
신 주님이 참된 진리로 다시 오
시는 때이며, 그 진리를 가지고

낡고 부패한 교회들을 심판하시
는 때입니다.

※ 바로 다음 주님 말씀의 때입
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
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
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4:30)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적 진리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무슨 영화처럼 드라
마틱하게 겉으로 오시는 게 아닙
니다 ^^

다시 오신 주님으로 표상되는 진
리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문
자적 의미 안에 담긴 신성한 내
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로 충만한 말씀의 문자적 의
미가 바로 다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친히 낡고 부패한 교회
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거짓 진
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대적하
던 교회들은 참된 진리의 눈부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 속에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본문에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산은 본래 사랑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인간의 악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마주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악에 숨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입니다.

※ 지상에서 아주 악한 삶을 살았으나 사후에 아주 간절히 천국을 원하는 영들이 있어 주님은 그들의 천국 방문을 허락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천국들 중 아주 최변방 경계선도 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천국의 경계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질식할 것 같은 상대가 되며, 마치 전자렌지에 오징어 굽듯 온몸이 그렇게 뒤틀리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이러다 내가 소멸되겠다’ 싶어 얼른 자기들이 있던 지옥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비로소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는 천국을 가나 봐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천국 빛 안에서 저렇게 되는 건 그들의 내면 모든 것

이 천국과 정반대로 완전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³¹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천국의 천사들조차 주님께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의 빛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 심지어 삼층천 가장 내적 천사들조차 사실은 주님이 투명한 옷을 입히신답니다. 일종의 보호장구이지요.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119 화재 진압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옷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각 천사와 사람에게 맞는 순화된 빛으로 오십니다. 그럴진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진리의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빛을 마주 대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³²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눅23:26-33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의 고난의 장소는 해골, 또는 골고다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해골은 머리를 둘러싼 뼈이고, 뼈는 영적으로 가장 차원이 낮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해골은 이른바 기억의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를 뜻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기억의 지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거짓 및 온갖 욕망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래서입니다. 말씀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도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도는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든 인간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 강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관련, 마태복음 25장 32,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³³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25:32-33)

여기서 오른편 양은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왼편 염소는 그 반대, 즉 끝까지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은 구원받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시험에 동참한 자는 구원을 받았고, 반대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³⁹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⁴⁰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⁴¹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⁴²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39-4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과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써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봤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모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중에도 생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일까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주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건 아닐까요?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얕은 지식을 내세워 오히려 진리를 내려다보는 건 아닐까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

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본시 강도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신 인성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필사적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시험은 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인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의지해 나를 버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찾은 이 진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65:19)

아멘.

2023-03-0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3-04-05(D4)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